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월 23일 (제113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핵가족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은 늘 북적북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집에는 20명이 넘는 대식구가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불편한 점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절을 배우고, 그 안에서 울고 웃으며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웠다.

요즘의 가족 형태를 일컬어 '핵가족'이라고 한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소(少)가족을 의미하는 말이다. 나는 요즘 핵가족은 많은 단점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쩍 느낀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죽고 싶다'는 어린 것들, 혹은 젊은 아이들을 자주 만난다. 실제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것이 핵가족의 폐단이다. 핵가족 형태는 가족부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맞벌이하는 부모와 외동이 허다하니 집은 그야말로 숙소에 불과하다. 몇 군데 학원을 전전하다 들어온 아이는 혼자 현관 도어락을 열고 캄캄한 집에 불을 켜고, 반겨주는 이도 없고 맞이해주는 이도 없다. 더욱이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로움에 몸살을 앓고, 그래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돌고 방황한다. 예전에는 부모가 부재중이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구 내 새끼' 하며 아이들을 품었다. 외출보다 삼겹쫄이 더 안전한 법 아닌가. 부모라는 테두리 하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테두리가 하나 더해진다면 아이들이 더 안전해지고, 기쁠 곳이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핵가족은 개인주의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북적북적하며 모난 모서리가 둥글어지고, 그 안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또 살아남는 법도 배워야 하건만, 요즘 아이들은 더불어 살 줄도 모르고, 배려나 협력할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고, 또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것이 사회에는 악이요, 자신에게는 죄를 짓는 자로 전락하게 만든다.

좋은 집은 돈만 있으면 짓는다. 그러나 좋은 가정은 돈으로 만들 수 없다. 몸이 편하자고 핵가족을 택할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풍요와 안정을 위해 대가족 제도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방안이요, 사회적 안정을 꾀하는 일이라 생각해서다.

마음이 맞아야 불협화음이 없다

'소리 나는 바퀴는 갈아 끼워야 한다' 조직 내에 자꾸 불협화음이 나게 되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결국에는 꼭 사고가 터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조직은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공멸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광된 자리에 올리시며 높이 쓰셨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다(행 13:22). 결국 그 약속대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도 마

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양털 위에 이슬을, 또 한 번은 양털을 제외한 모든 땅에 이슬을 내리사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군대를 조직하는데 처음에는 3만 2천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하시며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2만 2천명이 돌아갔고 1만 명이 남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며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물하는 자 3백 명 외에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

또한 지혜로운 자를 써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자가 목마르다고 물가에 가서 머리를 처박고 마시다가는 적에게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손으로 움켜 혀로 핏물하는 자를 고르신 겁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데 함께 싸워줄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지만, 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마음이 맞는 자는 우주와도 바꾸지 말라

봉우 이초석 목사

마음이 맞아야 행복의 꽃이 핀다

음에 맞는 자를 골라 쓰셨다는 이야기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사람은 골라 쓰는 것이다. 마음이 맞아야 불협화음이 없다'고 강조하셨다.

"내가 요즘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저네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복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저네들은 저주하며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저네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골라 쓰라고 얘기하셨구나.' 그러면서 기드온이 미디안군대와 싸웠던 사사기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기드온을 세우사 미디안군대와 싸울 군대를 조직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기드

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양털 위에 이슬을, 또 한 번은 양털을 제외한 모든 땅에 이슬을 내리사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군대를 조직하는데 처음에는 3만 2천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하시며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2만 2천명이 돌아갔고 1만 명이 남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며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물하는 자 3백 명 외에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3백 명만 데리고 가서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꿈과 해몽을 듣게 하사 수십만의 미디안군대를 기드온과 3백 용사에게 불이붙음을 확신케 하십니다. 기드온의 3백 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같이 여!'라고 외치며 진중으로 내달리니 수십만의 미디안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서로 싸우다가 3백 명의 기드온 군대에 진멸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회나 강조하신 겁니다. 매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합니다. 중간에 두 마음을 품고 요동하는 사람을 써서는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려는 꿈과 믿음을 가진 자를 써야 합니다.

끝으로 마음이 맞으면 우주를 쥐도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나는 우주를 준다 해도 이시대 목사와 바꾸지 않습니다. 나의 목회철학에 100% 동조하며 내 꿈이 곧 자신의 꿈이라 말하는 사람과 일하는데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흥망성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공을 시키고 사람이 망하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주일 및 수요일예배 대면예배 안내

접종완료자만으로 70% - 1체육관, 1차 및 비접종자는 30% - 2체육관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왕하2:1~14)

배를 만들기 전에 바다를 동경하라

성공하고 싶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사를 통해 깨닫고, 바보처럼 결심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시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를 따르던 50인의 선지자 후보생(생도)들과는 마음 자세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스승인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왜냐?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신만이 그려놓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고부동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네 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깊이 간직해온 꿈, 목표를 스승께 아뢰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왕하 2:9).

이런 분명한 꿈이 있었기에 엘리야가 길갈에서, 벳엘에서, 예리고에서, 요단에서 엘리사에게 계속 ‘가라가라’ 했지만, 그는 엘리야의 승천까지 지켜보며 그의 곁을 끝까지 사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으면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반드시 전쟁에 이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입다, 꼭 아들을 얻고야 말겠다고 기도한 한나,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 보리떡을 강청한 친구, 예수님을 찾아간 수로보니게 여인...,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해 자존심도 버리고, 역경도 이겨냈던 것 아닙니까? 아홉, 요셉,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시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쉽게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은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지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니 비가 조금만 와도 떠내려가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니 태양이 조금만 작열해도 시들어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 꿈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사의 꿈은 사실 너무나 큰 꿈이었습니다. 정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 겁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불세출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기도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쳤고(왕상18:20~40), 예리고성의 물을 고치고(왕하2:19~22), 과부의 기름통을 넘치게 하고(왕상17:8~16),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왕상17:17~24), 기도로 하늘 문을 열

어 3년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한 자가 아닙니까(왕상18)?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크고 야무진 꿈이지요. 오죽하면 엘리야조차도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왕하2:10)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꿈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저울에 달아 측량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분명히 그의 꿈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요단강물을 갈랐고(왕하2:14), 좋지 않은 물을 고치고(왕하 2:19~22), 과부의 기름을 채워 주었

고(왕하 4:1~6), 수넵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고(왕하4:18~37), 국에 독을 제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고(왕하4:38~44), 나이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고(왕하5:1~19),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기도 했고(왕하6:6), 사환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했고, 아람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물리치기도 했습니다(왕하6:13~23).

자고로 꿈은 커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새 우잠을 자더라도 그대 꿈을 꾴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며 자손에 대한 큰 꿈을 주셨지요. 성경에도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세계교구’라는 꿈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긴 제가 존경하던 스승도 ‘철산에루살렘교회’에서 ‘한국에루살렘교회’로 개명한다고 했을 때 “무슨 한국이야?” 했으니, 세계교구는 거의 망상에 가까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달리

다보면 넘어지기도 하지요. 태클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그 꿈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꿈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꿈도, 믿음도 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목회 15년을 기점으로 세계로 나갔고, 지금은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교구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을 뜨겠다는 꿈을 갖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선천적인 소경을 고쳤다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다에 오는 눈을 뜨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대 꿈 같았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를 만들

기 전에 바다를 동경해야 합니다.

꿈을 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옷을 들로 찢고 엘리야의 옷을 취해 그 옷으로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왕하2:14) 하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입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큰 꿈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벗어나고, 환경을 보지 말고, 팔자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하면 아무리 큰 꿈이라도 실현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막강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눅18:27),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열렬히 응원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못하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의 미래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꿈을 향해 도전해 보세요.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니까요.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의지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은 말이 먹어야 하는 겁니다. 학교는 부모가 보내주지만, 공부의 자기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능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하게 하시느니라”(롬9:18).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일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되 강제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바꿔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미래가 열립니다. 생각을 바꿔야 공색한 삶이 향기 나는 삶이 됩니다. 요즘 그림을 그리면서 문득 든 생각은 ‘그림을 그릴 때는 내 생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화폭에 그리면 됩니다. 생각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흑그림을 잘못 그리면 지우거나 덧칠하는 수고가 있지만, 생각은 바로 지울 수 있으니 마음대로 넓히고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한다면 평생을 그 밥에 그 반찬으로 살아야지요.

2022년은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 옷을 취하여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을 쳐서 강을 갈랐습니다. 생각을 키워 목표를 크게 잡았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빌4:13). “You can do it!”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미쳐야 미친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꿈을 꾸지만 모든 사람 이 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 면 꿈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작은 열정의 산물입니다. 그 꿈을 꼭 이루 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중 해야 합니다. “미치지 않고는 미칠 수 없다.” 는 말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그 일에 매달리 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결코 도달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해 서 관심을 가지면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전심전력으로 해야 합니다. 열정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정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작심삼일’이 라는 말이 있듯이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 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 지런해야 합니다.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 꿈을 위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꿈이라는 씨앗을 뿌렸으면 희망의 물을 주고 부정적 인 생각의 잡초를 제거하며 대충이라는 별 레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 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 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햇볕을 쬌어주지 않으면 농 부의 수고가 허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받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 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일이 복 받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 을 사랑하라”(막12:30)는 말씀대로 살아간 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 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하고 밭이 급한 사 람은 그릇하느니라”(잠19:2). 성공하려면 자 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 는 것이 없으면 할 일도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 든지 목회를 하든지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 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 수준 의 지식을 가지고 달려들면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변화 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배우고 익히 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 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풍성한 기도와 부 단한 노력으로 전문가가 되어 믿음의 꿈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 망하며 기도합니다.

상화평 목사

:: 신앙논객 ::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 올해 우리 교단 슬로건의 중심 에 있는 이 말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한 다는 뜻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켜 보 면,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 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으로나 사역으로나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 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있 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죠. 작년 연말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 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14,000일 정도 되더군요. 때로는 기억에 서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날도 있었고, 고 난과 실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빨리 지 나갔으면 하는 날도 있었고, 그 순간의 기쁨과 환희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날도 있 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에서 잊혔다고, 이 미 지나갔다고 그날들이 의미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그날들이 쌓여서 오늘의 나 를 만든 것이니까요. 14,000일 안팎의 시 간 동안 전심전력했던 날보다는 게을렀 거나 대충 적당히 쉬엄쉬엄 살았던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부도 난 수표일 뿐,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미 래의 나를 결정함을 저는 압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중 흠 없고 완전했던 사람은 오직 예수님 외 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들도 연약함과 부 족함,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하나 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당 신의 일을 이루셨고, 그들을 당신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 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신뢰하며 온 마 음과 온 힘을 다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이 있는 것은 총회 장 목사님께서 목회 초창기 500명 규모 의 교회가 깨졌던 경험 이후로 매사에 최 선을 다하시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 을 따라가셨기 때문입니다. 2022년, 내게 주어진 날들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살아봅시다. 혹 이전까지 그 렁게 살지 못했더라도 그날들은 결코 실 패한 날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수업료를 지불하고 경험을 통해 전심전력하는 법 을 배운 날입니다. 그렇게 전심전력하는 날이 하루하루 쌓일수록 어제보다 더 나 은 나, 한 걸음 진보(進步)한 나로 살게 될 것입니다.

신혁주 전도사

:: 오늘의 메시지 ::

준비하는 삶

2022년 1월 백신패스가 시작되었다.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나조차 어느새 3차까지 접종을 했다. 대부분 의 사람들이 접종했지만 아직 내 주변 에도 백신에 대한 강한 두려움 때문에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지인들이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 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텐데 그것을 감수 하면서 지내는 지인이 정말 대단하다 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성경 속의 짐승의 표가 떠 오르면서 말씀 구절이 생각났다. 두려 운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 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넉넉 히 준비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들어가 지 못하여 이 땅에 남아 있게 된다면,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키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라며 스스로 에게 의문이 던진다.

지금의 백신패스만으로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때의 삶은 어떨까? 요한계시 록 13장에 그날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 야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삶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추운 겨울, 차 가운 물이 머리에 끼여어진 기분이 들 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물어본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니? 말씀은 열 심히 읽고 있니?’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백신을 미리 준비하자. 그날이 불현듯 다가온다. 언 제 닥칠지 모르는 그 날을 위해 늘 깨어 서 준비하는 현명한 우리 모두가 되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25:13).

이인영 집사
ccbgrace@naver.com



:: 생명의 말씀 ::

기적을 바라는가?

기적 속에 살고 싶은가?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를 헤매어 보라. 죽음 앞에 서보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홍 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솟는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 저졌을 때 기적을 체험한다. 나는 그래 서 기적을 바라고 싶지 않다. 유람선 타 고 홍해를 건너고 생수를 사먹고 평강 속 에서 살고 싶다. 죽기 직전까지 목마르 고 생사의 기로에 서서 기적을 맞고 싶 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을 시련과 고된 환난 속으로 인도하신다. 야곱, 요셉,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 하나 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시련 을 겪게 하셨다. 고난이 유익이라! 정금 같이 변하기 위 해서는 불같은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하 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련만 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 신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에 감사해야 한 다.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니. 나는 죽을 고비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다. 죽을 만큼 힘들 때면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

셨다. 고독한 삶을 살게 하시어 내 영혼 을 더욱 깊게 하시며 교만한 마음을 어루 만져주셔서 내게는 이 세상을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알게 하셨다. 헤엄칠 줄 모르던 어린 시절, 폭우에 불 어난 개천에 휩쓸려 죽기 직전에도, 교통 사고로 차에서 튕겨져 나가 죽기 직전에도, 또 많은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을 맞았다. 신앙이 없었다면 죽 음을 떠올릴 만큼 험한 세월도 있었다. 그러나 힘들어 견딜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늘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주셨 다. 지금은 또 천하에 없을 고독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미래 를 보여주사 평강할 수 있으니 감사할 따 립이다. 시련 속에 간절한 마음과 절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복이 있다. 시련 속에 있는 자여, 감사하라! 고 통 속에 있는 자여, 감사하라! 그 고통과 시련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 감사 하라! 고통과 시련이 나를 어찌할 수 없 다. 주님이 잡아주신다. 위로하신다. 소 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신다. 이 세상 의 모든 고통과 시련은 허상인 것을. 할 렵투야! 이광주 목사
leekilkj@naver.com

출애굽 2세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이다. 집회 차 오시는 총회장 목사님을 영접하기 위해 들뜬 마음을 안고 슬라바 목사님과 함께 드네프로 공항에서 기다렸다. 출국장으로 나오시는 목사님은 나를 보자마자 “너는 출애굽 2세대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당시는 무슨 말씀인지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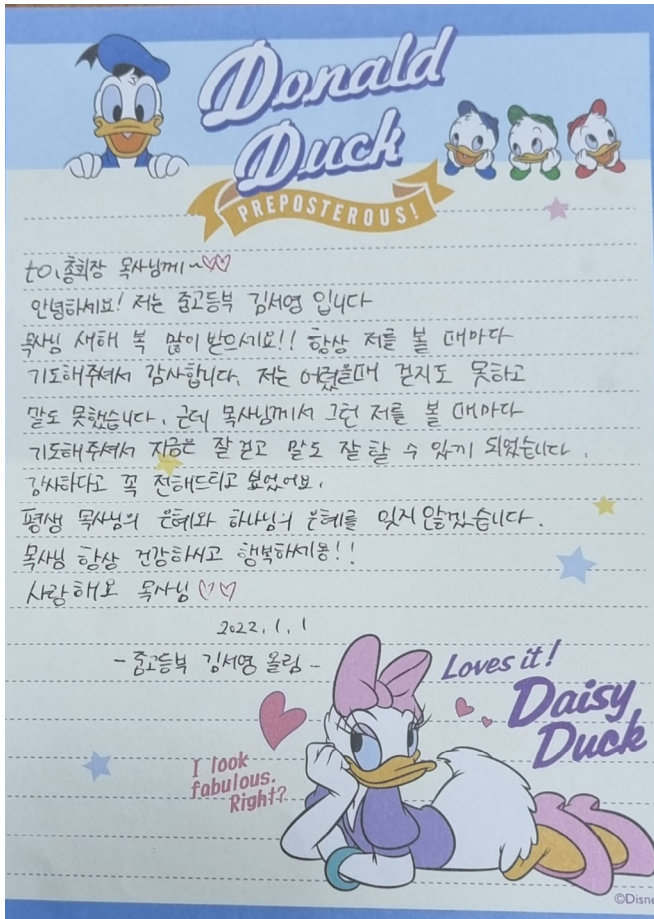
랐고, 그 의미와 뜻을 지금도 간간히 되새겨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곤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고, 이후 여호수아와 갈렘을 포함한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땅에 입성하였다.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후 400여년이 지난 다윗 왕 때에야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때까지 수없는 혼란과 갈등, 어려움을 반복하며 사사시대를 거쳤다. 가나안땅을 정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원주민에게 깊이 뿌리내린 성적으로 타락한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우상을 상대로 싸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일은 어

쩌면 우리 교단의 사명과의 일치하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 타성과 기득권에 젖은 기존 신앙인들과 이미 구원에 관심을 잃은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과 오직 예수중심이라는 신앙관을 전하며 쉽지가 싸워야하는 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어느덧 남원에 내려온 지 7년! 코로나를 핑계로 무사안일, 현실만족, 실수반복으로 교회를 이끌 것인지, 남원 땅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예수중심의 정신을 세워나갈 것인지 2022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는 바이다.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듯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기도원집회, 청소년수련회, 여름성경학교 등 말만 들어도 흥분되는 2022년의 현실을 기대하며 소망한다.

남원예수중심교회 서권능 목사

:: 성도의 편지 ::

목사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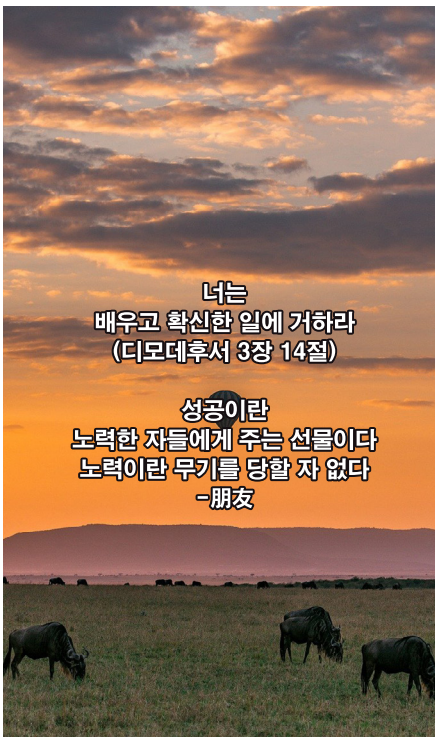
저는 돌이 지나서 열거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기를 할 때마다 세 포가 많이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성장발달이 느렸습니다. 엄마는 사계절 기도원 집회에 참여하셔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셨고, 늘 총회장 목사님을 찾아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집회를 인도하시고, 지치셨는데도 인상 한 번 안 찌푸리시고 찾아갈 때마다 귀신을 쫓아주시고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3살이 지나서 말을 하였고, 4살이 넘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으며 매일 언어치료와 재활치료를 다녔을 텐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걸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빛진 자입니다. 저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총회장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사님!



2022. 1. 1
중고등부 김서영 올림

다시 시작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유한한 시간인 듯하다. 그 시간은 그 어느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사정도 헤아리지 않고, 앞으로만 끊임없이 나아간다. 그런 아쉬운 시간의 끝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매일, 매월, 매년이 끝나며 체험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 또한 바로 시간인 것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날을 맞으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 하루가 너무 고단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아침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을 알린다. 하나님께서는 늘 다시 한 번 기회 주기를 원하신다. 마치 전자기기가 먹통이 될 때 재설정, 새로고침을 하면 더 나은 속도와 안정된 환경으로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먹통이 된 것만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이탄 리셋(reset) 버튼을 주셔서 다시금 맑은 정신과 안정된 마음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해주신다. 2022년이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고단함, 걱정과 슬픔, 외로움과 아픔을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리셋 버튼을 눌러주셨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기회이다. 행복의 기회, 건강의 기회, 사랑의 기회, 회개의 기회,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신앙 회복의 기회... 이제 다시 시작이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신30:15).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ndly



Good News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왕은 신하 중의 한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달려와서 “왕이시여,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라!’. 왕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당장에 능지처참당할 일이지만, 왕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날마다 점검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유언대로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놓게 하였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영토를 넓혀갔으나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광활한 영토와 진귀한 노획물들 하나도 쟁가가지 못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도다.”라는 솔로몬 왕의 고백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결국이 이와 같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지금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